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복무자이시다

리 관 속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복무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복무자입니다.》(《김일성전집》 제87권 45페이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근 70성상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하나로 함축하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처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불세출의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복무를 좌우명으로, 가장 성스러운 사명으로 내세우시였다.

인민관은 인민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으로서 인민관이 바로서있지 않으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을 지닐수 없다.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정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올바른 인민관에서 흘러나온다.

인민관은 령도자의 품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인민관이 바로선 령도자만이 자기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관통하고있는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존대하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운명도 같이하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정치의 기초로, 시발점으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하시였으며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 인민대중이라는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을 무궁무진한 힘의 소유자로, 모든것의 창조자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여기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본담당자로 여기시였다.

이 세상에서 인민대중이 기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을 천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제일재보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로 간주하시였을뿐아니라 인민을 시대의 왕으로, 사회주의의 기초로 보시였으며 언제나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하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모든 로선과 정책작성의 절대적기준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평가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을 모든것을 다 잘 아는 만능의 선생으로, 가장 힘있는

천하지대부대로 여기시였기에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력사적사명으로 간주하시였다.

언제나 자신우에 인민을 올려세우시고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는것을 생활신조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인민과 떼여놓고 생각해보신적이 단 한번도 없으시였으며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차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자세와 립장은 인민을 떠난 당이나 수령은 있을수 없고 혁명도 나라도 있을수 없다는것, 수령도 인민을 위한 수령, 당도 인민을 위한 당이고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다.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의 기쁨과 아픔을 자신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음식상을 마주할 때에도 인민들의 밥상을 먼저 생각하시였고 좋은 옷을 볼 때에도 인민들의 옷차림을 먼저 생각하시였으며 집을 지을 때에도 인민들의 살림집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근본원칙이였고 생의 근본목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떠난 생의 목적이나 리념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였다.

이 세상의 모든것은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며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치를 펴고 법을 만들어도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군대를 건설하여도 인민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신조로 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하여도 언제나 인민의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분석하고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원칙을 고수하시였을뿐만아니라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하는것을 모든 사업의 기준으로,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창조의 가치를 재는 자막대기로 여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오직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일감에 파묻혀 살며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치시려는 확고한 결심을 안으시고 심오한 사색과 탐구, 혁명실천으로 날과 달을 보내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 집약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모든것을 인민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대로 할뿐아니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곤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우리 사회는 근로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것만큼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강조하곤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고 모든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 주인공들인 인민대중을 경시하거나 인민들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시였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오늘도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김정일**동지의 좌우명이라고,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사랑하는 령도자는 없으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가장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주하는 령도자는 없다고, **김정일**동지만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강한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떠나서 인민에 대한 헌신이 있을수 없다.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여서만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헌신도 나올수 있다.

인민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령도자의 고결한 천품으로서 천하를 얻는 힘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는 자기 인민을 굳게 믿어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으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녀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어야 할 령도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우리 인민을 굳게 믿으시였을뿐아니라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삶의 보람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은 사상도 제일이고 재능도 제일이며 힘도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혁명을 하는 목적을 인민들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는데 두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지만 군중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늘 인생이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한생이라고, 생의 시작이 아름다웠으면 생의 마무리도 아름다워야 참된 인생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생신날도 언제 한번 편히 쉬지 않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려고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 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분초를 아껴가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자고, 허송세월해가지고서는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가꿔낼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하시는데서 최상의 행복과 긍지를 느끼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걸으신 초강도강행군길은 167만 4 610여리에 달하며 찾으신 현지도단위는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

고 우리 인민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철야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민족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물질경제적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국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이 통일된 조국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전에는 순간도 휴식할수 없다고 하시며 불편한 몸이시지만 인민들이 살며 생활하고있는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가 보시면서 근로하는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볼수 있는 사회주의재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가 늘어난데 대하여 그토록 만족해 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정치군사강국만이 아니라 경제강국으로까지 건설하는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문제에 심혈을 기울이신것은 경제를 발전시켜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빠른 기간에 추켜세울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언제나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인민생활향상에서 은을 내고있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은 그 어느것이 나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초불처럼 한몸을 깡그리 불태워 우리 인민들에게 대대손손 행복을 누려갈 귀중한 재부와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였으며 인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예나 칭호도 바라지 않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느끼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고야만다고, **김정일**동지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된 령도자의 최고귀감이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 가야 할것이다.